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1



▶ **소설가 백금남은** 1985년 제15회 삼성문학상을 수상하며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장편소설 〈십우도〉와 〈탄트라〉가 잇따라 주목을 받으면서 199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가 됐다. 2003년 민음사 올해의 논픽션상 등 다수 수상했으며, 〈샤라쿠 김홍도의 비밀〉 〈소설 신윤복〉 〈소설 법정: 바람 불면 다시 오리라〉 등을 발표했다. 2013년에 발표한 〈관상〉은 영화로 제작되어 '관상' 신드롬을 일으키며 베스트셀러가 됐으며, 〈궁합〉 〈명당〉과 함께 역학 3부작으로 꼽힌다.

석가모니가 아난에게 전한 '검'



어느 날 문득 1

여름이 시작되면서 비가 잦았다. 어제가 겨울인가 싶더니 새싹이 돋고 산등성이에 꽃이 지천이었다. 그러다 여름이 성큼 눈앞으로 다가왔다.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나 우기가 내려앉아 있었다. 오늘도 비가 오려나 하다 보면 날이 어느새 고개를 들었다. 우기의 변덕이야 그러려니 하는 것이지만 왜 새벽이면 날이 궂는지 모를 일이었다.

여름휴가라고 해야 꼭 이틀 쉬었다. 그것도 지방으로 내려가 제사를 모시니 어쩌니 하면서 겨우 빼앗듯이 찾아 먹은 휴가였다.

신문사로 나오기가 무섭게 국장이 찾는다고 하였다. 출근 도장이나 찍고 보조와 아침 해장이나 할까 했는데 뭔 일로? 하면서 국장실로 향했다. 김 보조가 따라오면서 투덜거렸다.

-술 때문에 속이 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작 마시라고 했잖아.

-뭔 소리를 할라고 아침부터 호출인지 모르겠네요.

-너 먼저 가서 해장국 시켜 놔. 국장 만나보고 금방 갈 테니까.

-그러다 못 오면요?

-무슨 일이 있겠어. 금방 갈 테니까 먼저 가.

-알았어요.

국장실로 들어서자 국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일어났다.

-어떻게 돼가?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을 묻는 것 같았다.

-예상대로예요.

-앉아.

국장이 찻주전자에다 직접 물을 받았다. 커피머신이 고장 나는 바람에 주전자로 물을 데우는 것이 성가실 텐데도 커피머신 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남들 눈도 있고 하니 제발 궁상을 떨지 말라고 해도 직접 물을 데워 타 먹는 차 맛이 좋다며 고집을 부렸다.

국장이 찻물을 데우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강압적이다가도 곤란한 일이나 어려운 부탁을 할 때면 자신의 방으로 불러 차를 내놓는 수법을 아는 터라 이 화상이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러나 하는데 생각보다 찻물이 빨리 끓었다.

이내 두 사람 앞에 차가 놓였다.

-마셔.

국장이 그렇게 말하고 먼저 찻잔을 들어 올려 호륵하고 마셨다.

차를 입속에 넣고 이리저리 굴렸다. 중국 취재 갔다가 사 왔다는 녹차 맛이 그런대로 괜찮았다. 차 맛이 이만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이 찻잔을 놓으며 시선을 들었다.

-앙코르 와트 취재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지?

-그래서인지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말이야.

국장이 찻잔을 들며 나를 힐끗 건너다보았다.

-또 나갈 일이 생긴 거 같아.

-네?

-방금 종정 예하를 만났는데 느닷없이 자신의 근영을 그린 금어(金魚:불화를 그리는 이) 얘기를 하더군.

-금어?

-그가 인도 뉴델리에 있는 이곳 말사인 천추사원(千秋寺院)에서 화재로 죽었다는 것이야.

-죽어요?

-이지안이라고… 탱화 잘 그리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금어 되기 전에 한때 종정 예하 상좌질을 했었다거든.

-그래요?

국장이 찻잔을 놓으며 고개를 주억거렸다.

-맞아. 두 해 정도 시봉 질을 했다고 하더군. 그러다 하산했는데 그 후 탱화 그리는 스님을 따라가 금어가 되었던 모양이야.

-그런데요?

-얼마 전에 인도의 천추사원에 계신 금원 조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묘하다는 것이야.

-묘해요?

-이지안이란 금어 스님이 왜 인도로 들어가 죽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야. 인도 정부에서 조사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걸 모르겠다는 것이야.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있어.

국장이 못을 박듯 이어 말했다.

-예?

-좀 전에 종정 예하께서 이걸 보라고 하더군. 천추사원에서 전문이 하나 날아왔는데 이상하다는 것이야.

국장이 일어나더니 자신의 자리로 가 책상에서 무엇인가를 적어놓은 메모를 가져왔다.

두 장이었는데 그는 내게 한 장만 내밀었다. 한 장을 오른손에 들고 말했다.

-이걸 한 번 읽어봐.

그는 왼손에 든 종이를 내 앞에 놓았다.

하늘 연못 스리나가르.

스리나가르로부터 남동쪽으로 59km 떨어진 비즈비하라.

비즈비하라로부터 13km 떨어진 아이슈 무쿠암(Aisb-Muquam).

어둑어둑 어스름이 밀려오는 초저녁이었다. 간밤의 비로 인해 길이 질척거렸다. 다시 비가 오려는 것인지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었다.

두 사내가 얼큰히 술이 취한 모습으로 아이슈 무쿠암이란 동굴로 다가들었다. 그 동굴 안에는 테르덴(옛 성인들이 남긴 성물을 찾아내는 이)이 살고 있었다. 9대째 가업을 이은 사람이었다. 그가 살고 있는 무쿠암 동굴은 본시 이슬람교의 성인의 유물함이 놓여 있는 곳이었다. 이 유물함이 인도 정부의 인정을 받으면서 그가 살기 시작했는데 그의 이름은 왈리 쉬라였다. 그의 조상 왈리 마하라는 15세기 술탄 통치 기간 술탄이 파견한 지방관 사이크 노르딘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석가모니 붓다의 제자 아난존자가 가지고 있었다는 칼 하나를 받았다. 그는 왈리 마하라에게 아난존자의 칼을 남기면서 이런 말을 했다.

-이것은 석가모니 붓다로부터 아난존자에게 전해진 검이다. 그 임자가 언젠가 이 세상으로 돌아오리니 그때 빛을 보리라.

그렇게 석가모니 붓다의 검은 전해졌고 왈리는 그 성물을 석관을 짜 그 속에 넣고 푸른 보자기를 덮어 보존했다. 그리고는 잡인을 금지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소문이 나지 않을 리 없었다. 왈리의 후손들이 인도 정부의 도움을 받아 그 성물을 지키고 있었으나 성물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끊일 날이 없었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는 것이어서 성물을 노린 사람들이 근접하다가 목숨을 잃고는 하였다.

일부에서는 현대식 건물로 옮겨 성물에 맞는 적당한 환경을 만들고 철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그러질 못할 사정이 있었으므로 부득이 원시적 방법으로 성물을 보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도 술에 취한 두 사내가 성물이 있는 건물로 접근했다. 주위를 지키는 군인들이 마침 한눈파는 사이였다.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 명령조차 없자 그들은 철조망을 끊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성물이 들어 있는 석관은 푸른 보자기에 덮여 있었다.

그들은 석관을 향해 다가들었다.

-흐흠, 우리들의 손길을 얌전히 기다리고 있군 그래.

-우리는 이제 남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을 걸세.

-자네 성물을 꼭 팔아야 하겠는가?

-그럼 목숨을 걸고 여기는 왜 들어왔는가? 그가 성물만 가져다준다면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하지 않았나.

-예로부터 말이 있다네. 성물을 소유하게 된다면 영생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성물의 힘으로 기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병든 자가 없다는 것도 그래서가 아닌가.

-아무튼 가져나가고 보자.

-그러자.

두 사내는 성물이 든 석관을 향해 손을 뻗쳤다.

그 순간이었다. 그들은 보았다. 성물이 든 석관을 붙들고 울고 있는 한 사내의 모습을. 초로의 사내. 누더기에 몸을 감싸고 지친 빛이 역력한 사내가 석관을 붙들고 눈물을 쏟고 있었다.

그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나며 눈을 크게 떴다. 이내 사내의 모습이 사라졌다. 그들은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사내 하나가 용기를 내어 석관 위에 덮인 푸른 보자기를 벗겨내었다. 푸른 이끼가 낀 석관이 드러났다.

뒤늦게 그들의 침입을 눈치챈 군인들이 달려와 순식간에 그들을 에워쌌다.

갑자기 마른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졌다. 군인들이 거리를 좁혀 왔고 두 사내는 석관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체포되었다.

2

-이게 뭡니까? 기사는 아닌 것 같은데?

읽고 난 내가 물었다.

국장이 고개를 주억거렸다.

-이원섭 기자의 솜씨야. 조간 시문에 난 기사를 보고 내가 다시 써보라고 했더니 그렇게 긁거 놓았네. 그런데 그 뒤가 더 이상해?

국장이 말을 하는 사이 나는 다시 글을 살펴보다가 시선을 들었다.

-더 이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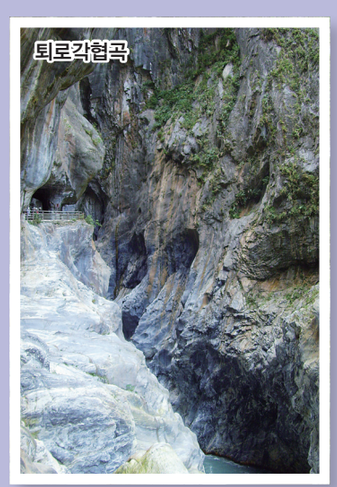
-이걸 마저 읽어봐. 이 기자에게 정리를 좀 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또 긁거 놓았어.

국장이 한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마저 내게 내밀었다.

그날. 종정은 잠시 쉬는 틈을 타 눈을 붙였다. 단 한 시간도 한가롭게 쉴 수 없는 나날이었다. 전 종정의 뒤를 이어 자신이 종정 자리를 맡은 지 채 일주일도 안 되는 시점. 이것저것 인수할 것도 많았지만 익혀야 할 것도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계속〉

현대불교신문과 함께하는
대만 성지순례 5일











지도법사 : 설오스님
법등사 주지, 유튜브 설오 스님TV

현대불교신문 성지순례는
■ 지도법사스님의 신심나는 설명과 유익한 순례를 약속합니다.
■ 불교전문 가이드가 진행합니다.
■ 쇼핑 옵션이 없습니다.
■ 동참하신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순례기간 : 2023년1월13일 ~ 1월17일(5일)

동참금 : ₩ 1,890,000원 / 현금할인가 예약과 동시에 예약금 30만원을 입금계좌로 보내주세요.

▮ 주요일정 :인천-가오슝-불광사-대흥선사-도원(타이페이)-조개-쟈오시-화련-도원-인천
▮ 입금계좌 : 농협 301-0088-7942-11 예금주 : ㈜케이투어
▮ 여 권 : 출발일 기준으로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있으셔야 출국가능
여권사진이 나온 부분을(여권사본) 헨드폰이나 메일로 보내주세요.
E-MAIL: ajetours@naver.com

문의 : 현대불교문화사업단 02)2004-8213, 730-4008 순례진행 : ㈜케이투어 아제여행 불교성지순례&특수지역전문 http://www.ajetour.co.kr/